

기고

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이 유 목 강진소방서 대우구조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우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출동수반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송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하계 하는 교육으로 한자를 알게 하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교육은 먼저 경험한 부모나 교사가 자녀와 학생에게 그 경험을 재구성(再構成)하도록 하는 과정인데 교육 방법은 경험한 것을 가르치는 교육과 경험하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주체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하계 하는 교육이 있다. 가르치는 교육은 교사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이 전달되지만, 하계 하는 교육은 학생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서 경험하면서 터득하는 학습이며 능력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며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기는 것을 질문하며 교사는 질문에 응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질문이 많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하계 하는 교육으로 상용 한자를 알게 해야 한다.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교육은 학교장 중심으로 창의·융합·자조·협동·근면의 정신으로 알찬 학교 교육으로 한 어린이도 포기 하지 않는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며, 교육청은 이에 따른 지원을 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해서 다른 학교에 반영한다고 한다.

학교장의 임무는 '학교를 총괄하고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창의 학습 과정에 학교장 재량시간을 이용해 한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안 해 학생들이 한자 문맹이 되고 있다.

학교장은 학생 교육의 과목을 정해 교육해야 하며 학교에 따라 학교장이 인성 교육과 한자 교육을 선택해 창의적으로 한자 교육을 하고 있다. 학교장이 일찍 출근해 교문에서 한자로 써진 교장 이름표를 차고 학생과 대면 인사를 하는 학교도 있고, 이에 따라 친구 이름 알기에서 한자로 된 이름표를 전 교생이 차고 다니며 한자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품게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한자를 알고 싶은 질문이 한자 교육의 동기유발이며 시작이다.

질문이 많은 학습은 주체적 창의 학습이다. 가르치는 교육은 교사가 앞에서 끌고 가는 학습이며, 하계 하는 교육은 교사가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는 학습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슬로건은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다. 중요시책으로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 중심 교육 강화'로 되어 있다. 그

렇게 하려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지도와 여건 조성인 학습 자료가 있어야 한다. 전근대적인 말만으로 가르치는 교육 방법으로는 스스로 공부하는 주체적 창의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탐구학습 과정으로 편집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적절한 방법지도만 하면 학생이 스스로 학교와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돌아가는 접시가 계속 돌게 하려면 계속하여 자극이 있어야 하듯이 스스로 하는 창의학습을 계속하게 하려면 자극제가 필요하며 그 자극제가 적절한 평가다. 그런데 진보 교육은 평가 방법 개선이라 하지만, 학부모가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필 평가는 드물다.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시험지를 들고 학부모에게 자랑하던 풍경은 사라졌다. 프로그램학습은 스스로 하는 탐구학습이며 각 과정마다 자기평가가 따르고 미진 된 것은 되돌아가 학습하게 되어 있다. 평가를 통과해야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것이 프로그램학습 과정이다.

광주시교육청에서(안순일 교육감 때) 만든 인성교육 익기 책은 프로그램 학습 원리에 의해 책을 읽으면서 한자 공부를 스스로 익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이 교육 현장에서 사라졌고 새로운 인성교육 자료도 만들지 않았다. 진보 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인성교육과 평가를 하는지 모르나 스스로 하는 창의 학습 체제를 택하려면 반드시 평가가 따라야 한다.

학교장 재량시간을 이용한 한자 교육에 관심을 둔 학교는 혼자 할 수 있는 한자 카드 한자 독습 교재를 학습 준비물에 포함해 사서 사물함에 두고 스스로 하는 창의 학습으로 한자 공부를 하고 있다. 학습 자료는 필요에 따라 갖춘 것이므로 교사는 자료 활용 방법지도가 따라야 하는데 활용 방법 지도 없는 자료는 사장되는 교육예산 낭비다.

광주시교육청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창의적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한자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에 따른 하계 하는 학습 방법지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고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하여

김형호 보성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에 따르면 집회 시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위법한 집회 시위까지 전부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기에 집회 시위 주최측에서는 집회와 무관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및 행진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도 적법한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평온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집회 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는 없다. 주최측에서는 권리를 요구 하되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과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생활권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공감받는 집회 시위 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